

지금 **Hot한 종목**을 Kodex로 만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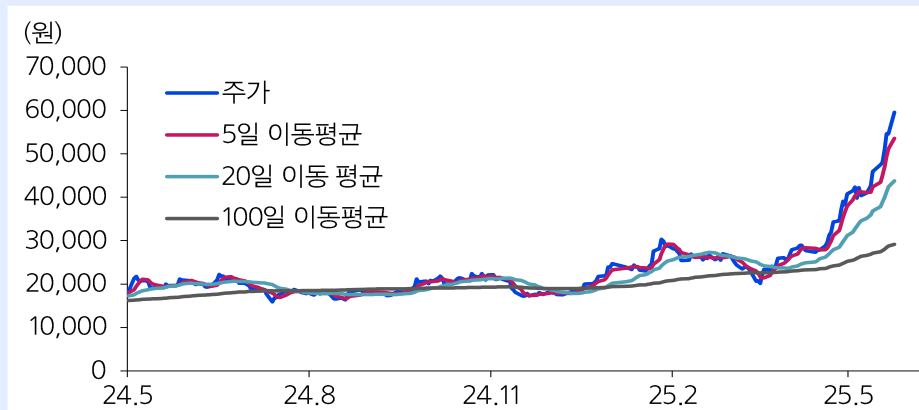
삼성 Kodex ETFNow

Vol 13. 2025.06.18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

01 | 이번 주 HOT 종목 : 두산에너지(034020)

코스피는 연초 이후 +22.6%를 기록하며 글로벌 증시 내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vs. S&P 500 +2.6%, Bloomberg 기준).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나타내자,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된 결과다. 한편, **글로벌 전력 부족 이슈로 국내 원전 및 전력기기 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증가한 점도 코스피 상승에 일조했다**. 특히, 두산에너지 주가가 연초 이후 211% 급등하면서 그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림 1](6/13, Bloomberg 기준).

[그림 1] 두산에너지 주가 추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지난해 말 두산에너지의 시가총액은 11.2조 원으로 코스피 내 37위 기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등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동사에 관심이 집중되며, **코스피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으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그림 2].

[그림 2]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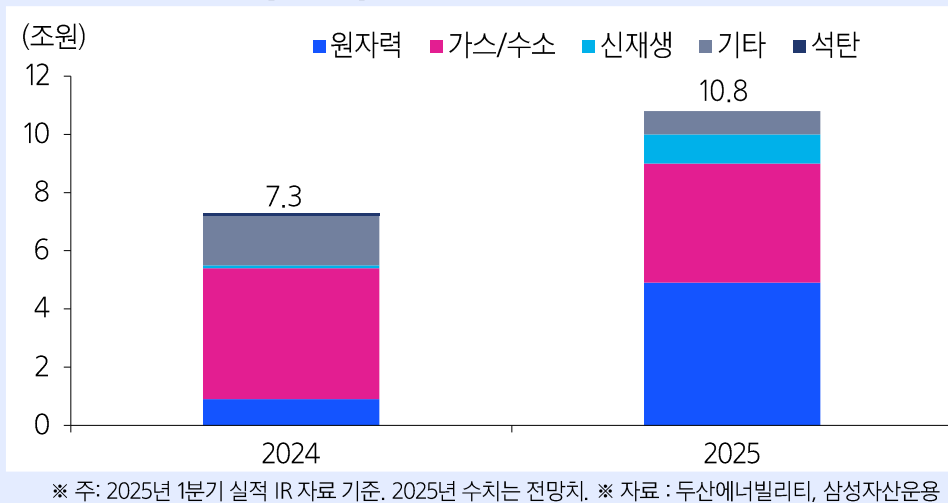
2024년말	시가총액(조 원)	2025년 06월 16일	시가총액(조 원)
1위 삼성전자	317.6	1위 삼성전자	338.6
2위 SK하이닉스	126.6	2위 SK하이닉스	180.5
3위 LG에너지솔루션	81.4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72.2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67.5	4위 LG에너지솔루션	68.6
5위 현대차	44.4	5위 한화에너지	45.9
:		:	
:		10위 두산에너지	38.2
:			
37위 두산에너지	11.2		

※ 자료 :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02 | 탄소 중립+늘어나는 전력 수요 대응 = 에너지전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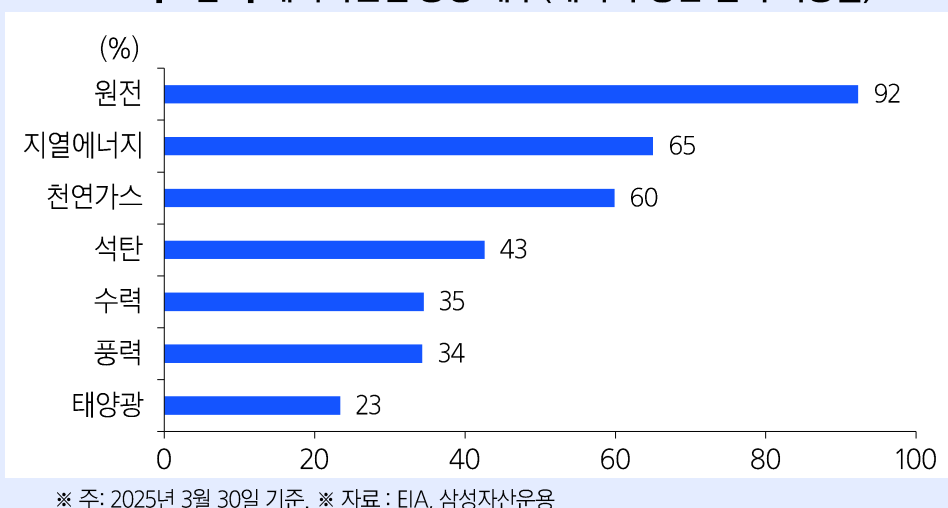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 하에, SI가 촉발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원자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20여 년간 탈원전을 고수한 탓에 해당 기술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에, **한국산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해외 수주 확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원 다각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스/수소,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주 실적 전망



두산에너지빌리티 주가 흐름은 단순한 개별 주식의 급등이 아닌 “탄소 중립과 글로벌 전력 수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시사한다. 이에 따라, 용량 계수(에너지 생산 설비 이용률)가 높은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위스콘신 주에 LNG 발전소 설립을 심사하는 등 가스복합화력발전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너지 생산 설비 이용률)



03| 두산에너지빌리티를 가장 많이 담은 Kodex ETF는?



102960

Kodex 기계장비

유가증권(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종목 중 기계장비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KRX 기계장비 지수를 추종하는 ETF

15.9%

385510

Kodex 신재생에너지엑티브

전력수요 확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지원도
기대되는 원자력, 풍력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

9.2%

275280

Kodex MSCI 모멘텀

6개월 및 12개월 가격 상승 모멘텀을 핵심 지표로
활용하여 상승세가 나타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

4.5%

※ 자료: 2025년 6월 17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04| Kodex 신재생에너지엑티브(385510) 알아보기!



Kodex 신재생에너지엑티브(385510) 투자포인트

AI가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확보 전쟁에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신재생·친환경
에너지(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RE100,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표준 이행을 위해 필수인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도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액티브 전략 ETF

▶ 삼성 Kodex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Kodex 신재생에너지엑티브(385510) 보유 종목 TOP5

구분	종목명	기업설명	보유비중
1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	신재생에너지 분야(수소, SMR 등)에서 프로젝트 설계, 기자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9.2% ★
2	HD현대일렉트릭 (267260)	전력기기(변압기 등)와 에너지 솔루션(스마트 그리드 등) 제공 기업	7.4%
3	한화솔루션 (009830)	태양광 모듈·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7.0%
4	LS ELECTRIC (010120)	전력기기와 에너지 솔루션(스마트 그리드, ESS 등) 분야 선도 기업	7.0%
5	효성중공업 (298040)	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6.3%

※ 자료: 2025년 6월 17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성총보수·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odex 기계장비: 합성총보수 연 0.4766%,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0393% 발생,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신재생에너지엑티브: 합성총보수 연 0.5591%,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0954% 발생,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Kodex MSCI 모멘텀: 합성총보수 연 0.3519%,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1306% 발생,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